

신학적 神正論의 관점에서 본 문학*

— <라울전>과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를 중심으로

신 익 호(한남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부조리한 현실 속의 신의 침묵에 저항 |
| 2. 신학적 '신정론'의 개념과 전개 양상 | 5. 결론 |
| 3. 은총 향한 삶의 치열성과 진정성 | |

1. 서론

신정론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의 물음을 다루고 있다. 이 용어는 라이프니츠가 성서 구절(『로마서』3:5~6)을 인용하며 처음 사용하면서 헬레니즘 철학자들에 의해 신정론의 문제가 제기된 후, 그 답을 찾고자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진 것은 계몽주의 시대였다. 철학적 신정론(라이프니츠, 칸트 등)은 이성을 통해 '무엇 때문에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답을 찾고자 했다면, 신학적 신정론(루터, 몰트만, 바르트, 메츠 등)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 따라서 신학적 답변은, 죄의 결과에 따른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유한적 존재로서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할 수 없기에 오직 자기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이 현실에 직면한 다양한 실존 문제를 극복하는 치열한 과정을 다루듯, 종교문학은 이런 보편적 현상을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로 고양시킨다. 신앙에서 신정론과 ‘신의 숨어 있음’의 존재론적 물음은 누구나 쉽게 해명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확고한 믿음을 통해 회의와 고통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절망과 허무 속에서 신을 원망하며 저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적 양상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원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공존할 수 있는 유전인자이다. 따라서 종교문학은 유한적 존재로서 인간이 불가해한 신의 섭리에 의문을 갖고 도전하면서 절망하거나 극복하려는 몸부림과 표피적인 신앙이 현실의 고통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실존적 상황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신앙의 양태 중 신정론의 문제가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최인훈의 『라울진』과 송우혜의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를 중심으로 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소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신학적 신정론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물음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 나타난 신의 섭리에 대한 의문과 회의에 대한 신앙적 갈등 양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숙된 신앙관을 정립하여 올바른 신앙태도를 갖는데 그 목적을 둘 것이다.

2. 신학적 ‘신정론’의 개념과 전개 양상

신정론(theodicy, 辯神論)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신정론은 악의 존재의 명확성과 신의 존재의 불명확성이란 이중적 난관에 직면하여, 신의 존재와 악의 존재가 양립 가능한 것임을 변증

하는 시도이다. 즉 명백한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다.¹⁾ 이 신학적 이론은 불가해한 신의 섭리에 대한 의문점, 즉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운 존재인데 ‘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행해지며, 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에 대한 회의적 물음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한 세계 속에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전통신학은 이런 신정론적 물음에 대해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 파기로 타락해 죄가 발생해서, 그 대가로서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고통을 정당화하는 신정론적 답변은 인간의 죄에 대한 벌, 혹은 연단을 위한 시련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귀결시킨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사는 현실상황에서는 쉽게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특히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시련이나 연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 적용은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보다는 이중의 고통을 부과하여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간과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신정론에 대한 또 다른 성서적 관점은 세상 죄를 대신 짚어준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나타난다. 이 고난은 죄에 따른 벌(罰)으로써의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의미한다(『이사야』40~55장). 그는 고난 때문에 죄인 취급당했지만 사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인간 죄를 대신해 고통당하는 ‘대속’의 존재로 상징화된다.

인간이 악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악을 극복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대신 희생한 의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칭의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 보이고 인식되는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존재로²⁾ 숨어있음 속에서 아픔을 느끼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1) 손호현,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열린서원, 2005, 25면.

2) 김용성, 『하나님, 이성의 범계에 서다 - 신정론』, 한들출판사, 2010, 114면.

에게 악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인간 예수를 통해 고난을 함께 나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듯, 야훼는 선민의식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정화시키기 위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굴욕적인 ‘고난의 풀무’(『이사야』48:10)로 몰아넣었다. 즉 고난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며 역사를 주관한다는 역설적 구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의 피조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정론은 20세기 세계1,2차대전을 전후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심각한 회의에 직면한다. 잔혹한 세계 2차대전의 아우슈비츠 경험은 기존의 신학이 간과한 인간 내면의 악성을 노출시켜 60년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세속화 신학 중 가장 급진적인 ‘신 죽음의 신학’(死神神學)을 배태시켰다. 행동하는 신학자 본히퍼의 사상에서 영향받은 사신신학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적 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하나님 상실의 경험과 예수의 윤리적 교훈을 토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해답과 현대인에게 복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으려 한 급진주의적 신학운동이다.³⁾

이런 급진주의적 경향은 선한 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던 기존의 신정론이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서 무엇하며, 자녀들이 죽음으로 신음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의 현대 신정론으로 발전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었다.⁴⁾ 세계 경험으로부터 추론하려 했던 현대 신정론적 물음에 대한 신학적 답변은 ① 이유 없는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함께 죽음의 고통을 겪었고 ② 십자가상의 예수 죽음은 어둠과 악에 대한 저항이므로 기독교인은 현실의 고난을 감내하며 다가올 부활의 희망을 위해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고 ③ 큰 고통 속에서도 은총을 체험하는 자는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크리스천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고통이 해소되기 전에는 어떤 설명으로도 답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정론 같은 의

3) 목창균, 『현대신학 논쟁』, 두란노, 1995, 306-308면 참조.

4) 최재선, 「현대소설에 나타난 신정론 연구」, 『문학과 종교』제 13권 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08, 4면.

문점에 대한 해답은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헌신이 뒤따를 때 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3. 은총 향한 삶의 치열성과 진정성 - 「라울전」

최인훈의 「라울전」은 나사렛 예수의 활동시대를 배경으로 성서의 실제적 인물인 사도 「바울」과 그의 친구요 경쟁자인 「라울」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설정하여 신의 공의와 섭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라울의 1인칭시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서술 형태로 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의 죽음과 승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변화되어 예수를 주(主)로 받드는 내용의 이야기를 라울의 시점에서 사건을 해석, 전개해 간다.

라울과 바울은 대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 석학 가마리엘 문하에서 공부하고 교법사가 된 죽마고우이다. 라울이 신중하고 소명의식에 따른 깊은 신앙심이 있지만 매사에 조심스러우며 우유부단한 반면에, 바울은 성격이 팔팔하며 조급하고 매사에 임기응변식으로 신실함이 부족한 편이다. 그는 로마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군이 못되어 가업의 계승으로 교법사가 된다. 라울은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였다. 자신의 능력이나 나태함과 전혀 상관없는 숙명적인 그 「무엇」에 고뇌가 따르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따른 믿음의 공지가 바울보다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승리와 행운은 바울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운명적인 열등감에 불안을 느낀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바울과의 경쟁에서 우연한 패배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가령 라울은 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울은 적당히 문제만을 짚어 공부하는데도 시험 문제는 언제나 바울이 공부한 대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 바울이 찍었던 시험 문제가 맞았고, 그가 절친한 로마 장군으로 인해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다.

바울에 대한 라울의 열등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든 면에서 정석대로 신실하게 원칙을 지켜온 라울보다, 불성실하면서도 요령껏 살아온 바울의 행보가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보다 항상 결과론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에서 라울은 오랫동안 박탈감을 느껴왔다. 둘째는 ‘까닭없이 진다’는 것에 있다. 노력의 차이나 어떤 실수로 인한 패배라면 납득하기 쉽겠지만, 바울의 승리와 라울의 패배는 항상 인위성이 게재되지 않는다. 라울은 이것을 ‘어떤 운명적인 열등함’이라고 표현한다. 운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가치관의 합리화이다. 라울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명이 항상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에서 불안과 열등감을 가졌다. 매사에 성실했던 자신보다 요행과 운수로 선택받은 바울에게 신의 은총은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바울보다 못하다는 것을 극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은총을 내린다고 체념한다. 라울은 이런 자신의 열등감에 기인하여 바울에 대한 질투의 반작용으로 항상 바울과 다른 대척점에서 있게 된다.

사실 대제사장 안니스가 예수를 모함하는 구실로 은연중 라울을 끌어들이려 압박을 가할 때, 라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수궁이 갔지만 “랍비 라울은 틀림없이 찬성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는 바울의 추측에 무의식적인 자존심의 반발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울은 그 반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다. 바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점차 많아지자 그들을 이단으로 단정짓고 박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라울은 그런 상황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한 나머지 경전과 사료를 뒤져 계보학적인 검토 후 예수가 다윗왕의 후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의 결론을 얻는다. 그렇지만 그런 확신 속에서도 매사에 신중하면서 우유부단한 그였기에 반신반의하여 정작 예수를 찾아가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와 할 일들을 핑계삼아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가 번민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것은, 만일 예수가 신의 아들이 틀림없다면 그가 자신있게 나서지 못한 채 망설일수록 자신의 공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진정한 믿음의 발로라기보다 기회주의적 태도이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즉 바울보다 앞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라울의 모습은 성서 속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해 만왕의 왕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공로를 더 크게 치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던 것과 닮은 모습이다.

시바는 라울의 아름다운 여종이다. 라울은 시바의 아름다운 모습에 호감이 가지만 자신의 위치와 노예인 그녀의 신분 탓에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바가 총독이 베푼 연회자리에서 눈을 피해 다른 노예와 밀회를 즐기는 것을 보고 그는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는 그녀가 노예인데도 인격적 대우를 해주었지만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겠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혹독하게 문책하지만, 그녀는 몰래 바울을 따라 그의 곁을 떠나 버린다. 그는 자신의 좁은 소견에 비해 시바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그녀를 데리고 떠난 바울에게 또 한번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충성스런 종 나단을 잃고 만다. 그가 정작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려 할 때 예수는 이미 처형된 뒤였다. 그는 바울이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절망과 충격에 빠진다. 바울의 그런 전향에 자신이 은연중 생각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확신하면서 또 한 번 바울에게 졌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것이다.

신은, 왜 골라서, 사울 같은 불성실한 그리고 전혀 영똥한 자에게 나타났느냐? 이 물음을 뒤집어 놓으면, 신은 왜 나에게 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적어도 절반은 인식했던! 나에게, 나타나지를 아니하였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 나머지 절반, 신이 라울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나머지 절반으로써, 라울의 믿음은 이루어졌을 것이 아닌가? 애를 쓰지도 않은 사울에게 것처럼 큰 은혜를 내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전의 예언자들은 모두 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값있는 바른 사람들이 아니었던가?⁵⁾

그는 자신이 알았으면서도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해 실천에 옮기지 않아 뒤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먼저 했다는 것에 좌절한다. 자신에게 먼저 기회가 왔어야 했는데 왜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갔는지

5) 최인훈, 「라울전」, 『우상의 집』(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1995, 70면.

에 대해 불평할 뿐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바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면서도 자신을 건딜 수 있게 해주었던 진리,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바울에게 우선권을 빼앗겨 더 이상 건딜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수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얻은 믿음이 바울에게 또 한 번 뒤쳐지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왔던 지성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바울의 전향으로 예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라울은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답을 얻었다고 믿었던 것이 오해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⁶⁾ 그의 지적인 측면이 현실의 불합리성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라울은 전도여행 중 만난 바울의 온화하면서도 위엄있는 모습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체험했던 그의 기적 소식을 듣고 변민에 휩싸인다. 그는 변민과 절망감으로 인해 반미치광이 상태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었드린 채 죽게 된다. 이 때 온화하고 단정한 그의 얼굴이 저주어린 악마의 추악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의 ‘뒤집혀진 눈알’의 충격적인 모습은 자기 신념의 좌절과 배신감의 척도를 반영한다. 이처럼 라울의 파멸은 절대적 신앙에 자신을 맡기기보다 운명적 열등감을 합리화한 지성 중심의 가치와 신앙관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려고, 라울을 미워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운명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을 당할 때만 신의 축복이라 하고, 불이익이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신에게 불평하고 불신감을 갖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별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나 시기 질투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인간은 그 축복을 크고 작음에 비유한다. 인간은 부유하고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저주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 의지할 신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결정 기준이 인간의 이성적·합리적 차원에서는 수궁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매사에 진지하고 경건한 라울보다 경건하기는커녕 기회주의적이며 요령껏 살면서 가혹하게

6) 이수형, 「신과 대면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1호, 명지대인문과학연구소, 2010, 231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같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 판단 기준에서 신정론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성서 속의 초월적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는 이런 이성적 사고의 판단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구속사를 위해 인간의 야망, 열정, 모험 등을 활용하는 중에 속된 마음과 악한 반항과 죄책감까지도 사용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애굽왕 앞에서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인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축복을 받았고, 눈 어두운 아버지에게 팔죽 한 그릇으로 속여 장자 상속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나약하고 결점 투성이인 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에서만은 어떠한 타협없이 가장 우선권을 두어 행동으로 옮기는 치열성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는 무조건 순종하였고, 야곱은 귀향도중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악착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신의 은총은 불쌍한 자에게, 피해자에게 동정적 차원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치열한 삶을 산 자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다. 라울의 시점에서 씌어진 이 작품에서도 바울에 대한 정보는 미약하지만 그가 좋은 방향에서든 나쁜 방향에서든 라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치열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 자신의 입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신 자체를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총이 돌아간다.

라울은 말로는 여호와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했지만 결단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그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해진 일과일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 했던 일들에 대해 무조건 자신이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이 했어야만 했던 일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도 어떤 점에서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이다. 그는 여호와가 결국 자신과 함께 하리라는, 즉 자신의 성실성에 따른 교만 섞인 기대감과 지적 우월의 자만감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간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7) 이동하, 『신의 침묵에 대한 질문』, 세계사, 1992, 43면.

것'에만 신경을 쓴다. 라울의 학문을 통한 이성적 사고 중시의 지식인적 성격은 '운명적인 열등감'으로 인한 불안감에 대응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의 지식적인 삶 추구는 바울에게 주어진 행운이 단지 우연이나 불합리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한 산물의 결과이다.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라고 했다. 라울은 예수의 신성을 체험하기 전에도 그가 메시아라고 예감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생각했고 라울의 편지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바울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 것이고, 라울은 '보지 않고도 믿은'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돌이켜 주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선 라울처럼 온건한 방법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기적을 체험한 후 즉각적인 부름에 응답하고 자기를 부인한 후 하나님에게 헌신하였다. 이때 바울은 기회를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붙잡았다. 그는 랍비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도 예수를 택해 피신하는 처지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과감히 행동하고 노예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나 라울은 지적 능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했다. 그가 용기가 있었다면 예수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었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고, 바울에 대한 열등감도 조금씩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바울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예수를 더욱 인정하려 했으면 절망감의 충격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신학자 포사이스는 신앙의 형태를 '인간 중심적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구분하는데,⁸⁾ 전자가 '에서'라면, 후자는 '야곱'으로 대변된다. 이런 모습은 이 작품에서도 전자 쪽이 라울이라면, 후자 쪽은 바울로 비유할 수 있다. '인간 중심적 신앙'은 인간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을 추구하며 온정을 강조하는 소박한 마음 형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다(『시편』 23편). 이에 반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성에 중점을 두어 신앙에 의한 칭의와 은총을

8) 고만송, 『포사이스의 신정론』, 기독교연합신문사, 2007, 157-158면 재인용 참조.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다(『시편』51편).⁹⁾ 전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만을 기대하는 경건하고 온정적 입장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믿음에 의한 칭의의 은총으로 사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울의 비참한 죽음을 듣던 바울은 『로마서』9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신의 뜻을 대변한다. 라울의 신정론적 항변이 바울의 비유를 통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반영한다. 모든 것은 신의 뜻, 신의 섭리일 뿐 그것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무어라 할 말이 없는,¹⁰⁾ 즉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의 뜻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는 순환론적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를 구분하면서, 계시된 의지는 의에 대한 우리의 기준에 표준이 되지만, 동시에 계시된 의지에 의해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¹¹⁾

웅기가 웅기장이더러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빗었느냐고 불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웅기장은 자기가 좋아서 못생긴 웅기도 만들고 잘생긴 웅기도 빗는 것이니

위 인용 부분은 바울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성서(『로마서』9:20~21)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 비유에서 웅기장은 ‘하나님’, 잘생긴 웅기는 ‘바울’, 못생긴 웅기는 ‘라울’이다. 웅기장이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웅기를 만들었는데, 피조물인 웅기가 어떻게 잘못 빗었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웅기장이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9) 『시편』 23편은 ‘시편 중의 진주’라 부르는 시로 여호와를 목자와 잔치상의 주인으로 비유해 그의 보호 아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질책하자 철저히 참회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발견하는 내용이다.

10) 차봉준, 『현대소설에 형상화된 신의 공의와 섭리』, 『문학과 종교』제 14권 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09, 120면.

11) 데이빗 그리핀, 이세형 역, 『과정신정론』, 이문출판사, 2007, 148면.

때, 즉 용기를 빛을 때 각각 쓸모에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은 라울의 생각과 달리 1,2등을 따지지 않는다. 탈무드에 따르면, 공주가 못생긴 부대에 담겨진 포도주를 예쁜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아 놓자 그 맛이 변해 왕이 노했다는 일화가 있다. 금그릇에는 금그릇의 용도가, 은그릇에는 은그릇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못생긴 부대에도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것이다. 어느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비교’라고 했다. 이것만 없더라도 아마 인간은 현재보다 반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존재에는 각자의 쓰임이 있고, 또한 최선을 다할 때 신의 축복이 따른다. 문제는 신의 세심한 부르심에 응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있다.

4. 부조리한 현실 속의 신의 침묵에 저항

-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

송우혜의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는 거식증에 걸린 소녀와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할머니,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구원받게 하려는 이강석 목사, 그의 친구 목사가 등장한다. 정민과 할머니는 과거에 성실히 교회에 다녔지만 고등학생인 오빠가 동네 불량배의 폭력으로 죽게 된 후 고통으로 병을 얻게 되고, 더구나 그 범인이 출옥한 후 제과점을 차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정민은 이런 현실의 부조리와 신의 섭리에 대해 회의하면서 심방온 목사에게 냉소를 보낸다.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주일 설교를 마치고 심방온 ‘그’에게 소녀의 냉소적인 태도는 당혹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슬픈 독경’을 하면서까지 출세지향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에게 이 당혹스런 경험은 귀경 중에서뿐만 아니라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중에도 내내 불안감으로 엄습한다.

이러한 스토리로 구성된 이 작품은 기도와 예배로 시작된 이야기가 슬픈 독경에 얽힌 과거의 학창시절 회상으로 전개되면서 교회 목회자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즉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 상황과 고통받는 신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직자의 고뇌, 현실지향적인 성직자의

삶의 양태를 은연중 비판하고 있다. 나뉜 작품의 단락대로 구체화 해보면, ①심방은 목사의 기도를 거절하며 냉소짓는 정민의 태도 ②학창시절의 ‘슬픈 독경’ 일화를 회상하며 정민의 냉소에 엄습하는 불안감 ③귀경 중에 이강석 목사와의 학창시절 회상 ④거식증을 앓게 된 정민의 가정사와 교역자로서 이강석 목사의 자괴감 ⑤거식증에 관련된 에피소드(정보부 고문사건과 배말미 일화) ⑥방화 후 정민의 거식증 치유와 설교 원고에 대한 불안감 엄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⑤단락에서는 당숙의 환갑날에 모인 주변 인물들의 대화 속에 거식증과 현실 적응에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연결고리로 이어져 주변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비쳐진다.

이강석 목사는 관절염과 거식증으로 고생하는 할머니와 정민을 위해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심방하여 기도한다. 물론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 신도들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그는 그들의 병에 뚜렷한 차도가 없자 신도들이 자신을 성직자로서의 능력을 시험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심적 고통을 영험한 성직자의 능력으로 어떻게 치유하나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 생명체가 식육을 가지는 것은 살아가는 데 가장 본능적인 욕구로서 삶의 의지이다. 그런데 이런 본능적 욕구를 거부하는 것은 병적인 심리적 증후라 할 수 있다.

기도가 거식증에 효험이 있다 해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의 기도로도 안 된다면,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한마디 빼죽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 거식증에 대체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드리는 기도조차 전혀 효험이 없단 이야기에요.¹²⁾

정민의 거식증 원인은 자신의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던 장본인이 출옥해 제과점을 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민은 심방은 목사에게 매일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차도가 없는데 기도로 거식증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린다. 이런 소녀의 냉소적 태도는 전도 유망한 대형교회 부

12) 송우혜,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 생각의 나무, 2001, 328면.

목사로서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한다는 ‘그’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정민의 거식증은 삶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신에게 저항하는 행위이고, 범인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오빠를 죽인 범인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이다. 사건 후 할머니와 정민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왔지만, 범인이 출옥한 후 병을 앓게 된 것이다. 그들은 범인이 죄의 대가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을 뿐이지 신앙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징벌해야 할 몫을 국가가 해주었다는 사실에 위로 받으며 자신의 평안과 수양을 위해 교회에 나간 것이다. 정민과 할머니는 신앙에 의지하며 평온을 찾으려 했지만 범인의 행복한 삶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정민은 밥까지 거부한다. 즉 고통스런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 것이다. 아마 세상이 가혹하게 살인범을 심판했거나, 범인이 큰 불행한 처지에 있었다면 정민의 거식증은 발생하지도, 아니 발생했더라도 쉽게 극복했을 것이다.

정민이 범인의 제과점에 방화한 후 심한 화상을 입고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방화는 신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반항의 표출로 복수심이 끓어올라 폭발한 것이다. 신의 섭리와 인간 의지 사이에서 신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의 의지대로 저항하며 고통을 극복하려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다. 많은 신도들이 감동하고 칭송했던 목사의 기도가 아닌, 즉 신이 심판하지 못한 것을 대역자로 심판했기에 거식증을 치유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심리적인 분노와 고통이 사라졌기에,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만족감보다 허탈감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정민의 반항적 행동은 그가 겪었을 고통의 상처로 볼 때 보편적 인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성서의 『욥기』에서 욥은 ‘왜 피조물은 계속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선한 길에 들어선 인간에게조차 파멸의 길을 허락하시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하박국』에서 선지자 하박국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인의 존재를 묵고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는 신정론적 물음을 제기하며 답을 듣고자 한다. ‘왜’라고 묻는 것은 비극을 당한 직후에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¹³⁾, 주위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차각하는 실존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주어지지 않고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2:14)는 확신만 주어진다. 이런 의문은 ‘고난받는 자는 악한 자이다’는 현실 세계의 고난을 악의 징벌로써 해석하는 교리적 단순화를 거부하는 항변이다. 이런 회의적 물음 속에서 읊과 하박국이 얻게 되는 답은 결국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신뢰감이다.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한 것 속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도 함께 일어난다.¹⁴⁾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절망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는 역설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죄 많은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 받는다는 구속사인 것이다.

이 속죄의 거듭남은 원초적 창조 (『창세기』)보다 훨씬 경이적이며 신비적인 제2의 창조로서 영적이면서 거룩한 자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¹⁵⁾ 인간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의인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는 ‘자기칭의’(自己稱義)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민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이런 성서적 원리에 따라 그 자신이 이미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 없이는 이런 진리를 체험화해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심리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그것으로 야기된 현실상황을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점차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느낌 너머에 있는 믿음과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며, 그가 처한 현실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한다.¹⁶⁾ 그런데도 작품 속 교역자들은 정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중에 이 목사는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병원에

13) 호레이스 O. 듀크, 김영호·호소훈 역,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쿤란출판사, 2003, 41면.

14) 김용성, 앞의 책, 107면.

15) 고만송, 앞의 책, 84면.

16) 호레이스 O. 듀크, 김영호·호소훈 역, 앞의 책, 63면.

입원하게 되자 고문처럼 여겨지는 고통스런 기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의로움으로써 초월적 존재성의 능력을 갈망하는 순수한 목회자이다. 그렇기에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정민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자 한계를 느낀다.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청하고 목사의 능력까지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 목사는 자신의 한계에 따른 탈출구로서 궁여지책으로 친구 목사인 ‘그’에게 설교와 심방을 부탁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그 전에는 아예 친구의 목회 방식을 거부감을 가졌지만 상황이 이런 만큼 정민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실주의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고통스런 정민의 가족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한계에 이르자 단순한 위로와 기도로 일관하며 그 상황을 피할 궁리를 했지만, ‘그’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피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슬픈 독경으로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바라지 않는 이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며 고통받는 한 신도를 피하는 것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소녀에게 거식증을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는 대학원에 다니며 대형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감정에 실어 설교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때로는 주위의 감동과 찬사를 받기 위해 성도의 감정에 호소하는 슬픈 독경도 마다하지 않는다. 슬픈 독경은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부러 슬픈 사연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내용의 설교를 뜻한다. 신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슬픈 독경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간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선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슬픈 독경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해 물질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더욱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마취제처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반해 이 목사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슬픈 독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눈물의 동정을 일으키는 감정에 휩싸이므로 진실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 그에게 슬픈 독경을 택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목회자의 한계에 따른 탈출구로써 ‘그’에게 설교와 심방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직자란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신앙심을 통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고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닌 것이다. 슬픈 독경으로 성도의 마음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맑은 독경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런데 두 목사들은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나 무속적 기복신앙의 태도에 대해 시정해주고 질책하기보다 단지 형식적인 위로와 기도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강석 목사는 성도들의 부탁으로 석달 동안 거의 매일 정민의 집을 심방해 기도하지만, 그런 일과가 고문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질 즈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홀가분하게 생각한다.

두 목회자들은 성서적 근거에 바탕을 둔 기독교인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신자의 냉담함이나 악에 대해 꾸짖기보다는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기도로 그들의 상처를 덮고자 했다.¹⁷⁾ 목회자에 대한 신도들의 기대는 자신들의 처지를 뜻하는대로 위로해 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 때 목회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기복신앙화되어가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기적을 구하는 신도들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해야 한다. 교역자가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신도들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목회자로서 권위와 자신감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이 써 놓은 설교 원고에 대해 그런 불안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더욱 당황스럽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삼킴 듯 노려본다. 그러나 이미 글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불길한 고양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신의 전존재를 움켜쥐었음을, 그리고 그 사나운 발톱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¹⁸⁾

17) 최재선, 앞의 논문, 16면.

‘고양이’는 작품 제목에 나타나지만 작품 속 이야기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고양이의 습성은 강아지와 달리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다가온다. 따라서 인간이 원하지 않을 때 고양이가 다가옴은 반가울 수도 두려울 수도 있다. ‘부르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머피의 법칙’처럼 부딪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강석 목사의 부탁을 받고 거식증을 앓고 있는 정민을 만난 후부터 자신의 신앙적 태도와 가치관에 불안을 느낀다. 슬픈 독경의 방식을 취해서라도 정민에게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거절로 자신의 무력감만 느낀다.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 비웃는 정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속에 정민의 냉소가 엄습해 온다. 그 동안 교회 안팎에서 받은 칭송과 찬사에만 익숙해진 그에게 낯설이 대면한 정민의 불손과 비웃음에 자신이 당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세지향적이고 전도유망했던 ‘그’가 갑자기 경험한 이 사건은 부르지 않을 때 오는 고양이처럼 인생의 시련·고난·불행·회의·갈등 등을 동반한다. 이런 불안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왔던 목회 방법과 신념에 대한 회의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마지막 장면에서 평소에 준비해 왔던 설교가 자신에게 낯설게 느껴지며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자신을 움켜쥐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가식적인 슬픈 독경이 묻어있는 설교로 세칭 전도가 유망한 목사로 추앙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정민을 통해 슬픈 독경처럼 감동과 은혜로움을 포장해서 감정을 움직이는 설교가 꼭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는 것이다.

5. 결론

신정론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고소당해 이성의 법정 앞에서 있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신

18) 송우혜, 앞의 책, 360면.

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 불가해한 신의 섭리를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는데에 초점을 둔다면, 문학적 영역에서는 유한적인 존재로서 부조리한 현실과 불가해한 신의 섭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항하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다룬 두 작품은 신정론적 관점의 전제하에 그 회의적 갈등과 부조리함을 극복하려는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울전』은 성서적 배경을 토대로 ‘라울’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설정해 이성적 사고의 기준에서 신의 공의와 섭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 중심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닌, 신 자체를 믿음으로 섬기며 치열하면서도 삶의 진정성을 지닌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는 기독교적 용서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적 상황과 고통받는 신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직자의 고뇌, 현실지향적인 성직자의 삶의 양태를 은연중 비판하고 있다. 주인공인 정민은 유한적 인간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 물음을 제기하면서 불가해한 신의 섭리에 반항하고 절망하는 고독한 인간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만송, 『포사이스의 신정론』, 기독교연합신문사, 2007.
- 김용성, 『하나님, 이성의 범정에 서다 - 신정론』, 한들출판사, 2010.
- 데이빗 그리핀, 이세형 역, 『과정신정론』, 이문출판사, 2007.
- 목창균, 『현대신학 논쟁』, 두란노, 1995.
- 손호현,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열린서원, 2005.
- 송우혜,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 생각의 나무, 2001.
- 이동하, 『신의 침묵에 대한 질문』, 세계사, 1992.
- 이수형, 『신과 대면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인문과학연구논총』제31호, 명지대인문과학연구소, 2010.
- 임영천 외, 『기독교 문학과 실천비평』, 푸른사상, 2003.
- 차봉준, 『현대소설에 형상화된 신의 공의와 섭리』, 『문학과 종교』제 14권 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09.
- 최인훈, 『라울전』, 『우상의 집』(최인훈 전집 8), 문학과지성사, 1995.
- 최재선, 『현대소설에 나타난 신정론 연구』, 『문학과 종교』제 13권 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08.
- 호레이스 O. 듀크, 김영호·호소훈 역,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쿰란출판사, 2003.

【국문초록】

신정론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는가의 물음을 다루고 있다. 고통을 정당화한 신정론적 답변은 인간의 죄에 따른 연단과 시련, 인간을 대신해 고통당하는 대속의 존재로 설명한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불가해한 신의 섭리에 의문을 갖고 도전하면서 절망하거나 몸부림치고, 표피적인 신앙이 현실의 고통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실존적 상황을 치열하게 다루고 있다.

『라울전』은 지성적·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라울이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신의 은총은 인간 중심의 목적이 아닌 신 자체를 믿음으로 섬기며 치열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삶을 산 자에 베풀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놓고 신의 섭리와 인간 의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저항하다 좌절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면서, 고통받는 신자에게 도움주지 못하는 성직자의 고뇌와 현실지향적인 성직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어: 신정론, 치열성, 진정성, 부조리, 신의 침묵

【Abstracts】

Literature from the Theodicean Point of View

– Focused on “Raoul Biography” and “Cat Comes When It Isn’t Called”

Shin, Ik-ho

The theodicy is a statement to plead God who is sued by people for the suffering and evil in the world and stands in front of the court of the reason. In the theological point of view, writers focus on making the mysterious providence of God understood with the power of the faith in order to explain God’s justification. In the literary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writers depict the realistic situation of human being who brings out questions about absurd realities and incomprehensible providence of God as a mortal being.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ways the sceptical conflict and absurdity are overcome from the theodicean point of view.

“Raoul Biography” shows that a fictional character called Raoul raises questions about the providence and justice of God on the basis of rational thought. It expresses the limitations of humans who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providence and justice of God. Also, it implies that God’s grace goes with a man who doesn’t have a religion for the his own desire but has a faith in God and lives the true life.

“Cat Comes When It Isn’t Called” deals with the matter of christian forgiveness. It criticizes implicitly the ministers’ tendency toward the reality and their agony which doesn’t give any help to christians who face

and suffer from the absurd reality. Jeong Min, a main character, is a portrait of a lonely man who poses questions about the existence, rebels against the mysterious providence of God and falls into despair as a mortal being.

key words : theodicy, fierceness, sincerity, absurdity, God's silence.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